

보도일시 (인터넷) 2023. 11. 30.(목) 11:00, (지면) 2023. 12. 1.(금) 조간 배포 2023. 11. 30.(목) 06:00

12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해양유물, 무인도서 선정

- 이달의 수산물로 방어·미역·굴을, 어촌여행지로 포내·궁항마을을, 해양생물로 참고래를, 등대로 슬도등대를, 해양유물로 백자청화운룡문항아리를, 무인도서로 불도를 각각 선정

① 이달의 수산물 - 방어, 미역, 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드는 12월을 맞아 이달의 수산물로 방어, 미역, 굴을 선정했다.

제철을 맞은 방어는 12월부터 1월까지 가장 맛이 좋으며, 불포화지방산(DHA), 비타민D 등 영양이 풍부해 겨울철 인기가 많은 횡감이다. 특히 크기가 큰 대방어는 부위별로 맛이 다른데, 기름기가 적은 몸통 부위부터 시작해 기름기가 많은 부위를 번갈아 먹어야 맛있다.

미역은 동의보감에도 나올 만큼 오래전부터 즐겨먹던 식재료로, 진한 국물이 일품인 미역국부터 무침, 냉채, 볶음, 죽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미역을 고를 때에는 잎이 넓고 줄기가 가늘며, 약간 푸른빛을 띠는 것이 좋다.

굴은 '바다의 우유'로 불릴 만큼 영양분이 많고 맛이 풍부하여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랑받는 식재료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생굴 그대로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갓 담근 김장김치에 보쌈과 함께 곁들여 먹는 별미를 즐길 수 있고, 생굴 외에 매생이와 함께 끓인 굴국, 굴전, 굴튀김 등도 인기가 좋다.

이달의 수산물인 방어와 미역, 굴을 비롯한 수산물 관련 정보는 어식백세(<https://blog.naver.com/korfish01?proxyRefer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이달의 어촌 여행지 - 인천 중구 포내마을, 경남 통영 궁항마을



포내마을 갯벌체험



궁항마을 실내체험

12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로는 2023년 체험부문 일등어촌을 차지한 인천 중구 포내어촌체험휴양마을과 경남 통영시 궁항어촌체험휴양마을을 선정하였다.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포내어촌체험휴양마을은 소라를 활용한 실내 공예 체험과 서해안 갯벌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2023년 어촌마을 등급 평가에서 체험 부문 일등어촌을 차지한 바 있다. 인근에는 무의도 해상관광 탐방로와 호룡곡산이 있어 산책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고, 어촌 마을 ‘워케이션(Work+Vacation)’이 가능한 공유 사무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어촌에서 일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도 있다.

경상남도 통영시에 있는 궁항어촌체험휴양마을은 마을 앞 갯벌에서 바지락과 고둥을 잡는 갯벌체험을 하고, 실내 체험안내센터에서 전복 껍데기를 이용한 나전칠기 열쇠고리도 만들 수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 좋다. 마을 인근에 있는 만지도, 연대도 등 섬 여행도 즐길 수 있고, 통영 케이블카, 루지(특수제작된 카트를 타고 내려오는 기구) 등 놀거리도 가득하다. 여행을 즐긴 후에는 어촌계 공동숙박장소인 궁항어촌체험마을 민박에서 편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

12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에 관한 자세한 관광 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 (www.sean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이달의 해양생물 - 참고래



12월 ‘이달의 해양생물’로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동물 중 두 번째로 큰 ‘참고래 (*Balaenoptera physalus*)’를 선정하였다.

참고래는 몸길이가 최대 24m, 몸무게는 75톤에 육박하는 거대한 해양포유류이다. 먹이를 먹을 때 무리를 짓는 습성이 있으며, 매우 커다란 몸집에도 불구하고 시속 37km 속도로 빠르게 수영할 수 있다.

참고래는 전 세계의 온대, 아한대 및 극지 주변 해역에 주로 서식하며, 심해와 같이 차가운 곳을 선호한다. 여름철에는 극지방에서 작은 갑각류나 물고기 등을 잡아먹으며 생활하다가 겨울철이 되면 번식을 위해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살아있는 참고래가 마지막으로 관찰된 이후 한동안 흔적되어 죽은 개체만 드물게 발견되다가, 42년 만인 2022년 동해에서 살아있는 개체 6마리가 발견되면서 여전히 우리 바다에 오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 참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참고래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참고래를 비롯한 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이달의 등대 - 울산광역시 동구 슬도등대



슬도등대

(제3회 등대사진공모전 대상 수상작_김옥경)



울산소리체험관

12월 ‘이달의 등대’로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있는 ‘슬도등대’를 선정하였다.

1958년 5월 첫 불을 밝힌 ‘슬도등대’는 2008년 12월에 지금의 모습으로 재탄생하였다. 이 등대가 있는 곳은 바위섬으로, 갯바람과 거센 파도가 바위에 부딪칠 때 거문고 소리가 난다고 하여 슬도(瑟島)라고 불리게 되었다.

슬도에서는 일출뿐만 아니라 동해안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환상적인 일몰까지 볼 수 있어 일몰시간을 잘 맞추면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찍어볼 수 있다. 또한, 등대 근처에 있는 울산소리체험관에서는 슬도의 파도 소리, 조선소 망치소리 등 이 지역의 특색있는 9가지 소리 체험도 가능하다.

슬도등대는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울산의 대표 어항인 방어진항 뿐만 아니라 대왕암공원, 울기등대, 일산해수욕장 등 울산 대표 명소들과 이어져 있으므로 함께 방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달의 등대를 방문하거나 여행 후기를 작성한 여행자 중 일부를 연말에 선정하여 예쁜 등대 기념품과 50만 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등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 (lighthouse-museum.or.kr)의 ‘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대 주변 관광정보는 울산시 동구 문화관광축제누리집(donggu.ulsan.kr/tour)에 소개되어 있다.

⑤ 이달의 해양유물 - 백자청화운룡문항아리[白磁靑畵雲龍文壺]



조선후기 | 높이 47.8, 입지름 18.5, 굽지름 18.3 | 해양수산부 소장

12월 '이달의 해양유물'로는 구름 속을 힘차게 날아오르는 용 문양이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는 <백자청화운룡문항아리>를 선정하였다.

상상의 동물인 '용'은 동·서양의 전통사회에서 바다를 관장하는 해양의 신으로 여겨졌다. 용은 어민들에게 해신(海神)으로서 어로신앙의 대상이었고, 농경민들에게는 구름을 움직이고 비를 내리는 수신(水神)으로 숭상되었다. 조선왕실은 구름을 헤치고 승천하는 용의 모습을 복되고 길한 것으로 여겨 왕실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사용하였다.

해양수산부가 소장한 <백자청화운룡문항아리>에도 크게 부릅뜬 눈,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털과 수염, 날카로운 4개의 발톱, 몸통 비늘까지 꼼꼼하게 묘사한 용 문양이 있는데, 50cm에 가까운 큰 키에 어깨가 당당하게 벌어져 있어 왕실의 권위를 느끼게 한다. 용이 그려진 청화백자 항아리는 대표적인 왕실 공예품으로, 혼례, 제사, 장례 등 크고 작은 궁중 행사에 두루 사용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양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고 사라져 가는 해양유물을 수집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 중이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기증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해양수산부 유물수집 담당자에게 전화(044-200-6064)나 전자우편(stella0826@korea.kr)으로 문의하면 된다.

⑥ 이달의 무인도서 - 진도 낙조의 명소 ‘불도’



12월 ‘이달의 무인도서’로는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에 위치한 ‘불도(佛島)’를 선정하였다.

한 스님이 해 질 녘 학을 따라 날아올랐다가 바다에 떨어졌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이름인 ‘불도(佛島)’는 고도 70m, 길이 약 550m, 면적 97,610㎡인 무인도서로, 육지로부터 약 3.2km 떨어진 곳에 있다.

화산재가 쌓여 굳은 응회암으로 구성된 불도의 암석층은 조류와 파도, 비바람에 의해 깎이고 닳아 기이한 모양의 바위와 동굴, 절벽을 이루고 있다. 불도는 1980년대까지 사람이 거주하던 유인도였으나, 지금은 ‘명상의 섬 불도’라는 비석과 함께 무인등대와 나무계단만이 남아있고, 곰솔과 후박나무, 왕대군락이 섬을 지켜주고 있다.

불도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선정된 세방낙조전망대에서도 볼 수 있고, 유람선을 타고 다도해의 풍광을 다채롭게 즐기며, 가까이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불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 (<http://uii.mof.go.kr>)에서, 인근 관광 정보는 진도군 관광문화(<https://www.jindo.go.kr/tour/main.cs>)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총괄>	대변인 홍보담당관	책임자	과 장	최국일 (044-200-5013)
		담당자	사무관	나유성 (044-200-5017)
<수산물>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구도형 (044-200-5440)
		담당자	서기관	김윤이 (044-200-5447)
<어촌마을>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책임자	과 장	김정화 (044-200-5650)
		담당자	주무관	박윤범 (044-200-5652)
<해양생물>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신재영 (044-200-5310)
		담당자	사무관	최재용 (044-200-5315)
<등대>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	책임자	과 장	유은원 (044-200-5870)
		담당자	사무관	조용훈 (044-200-5878)
<해양유물>	해양정책관 해양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신 (044-200-5220)
		담당자	사무관	우민아 (044-200-6064)
<무인도서>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	책임자	과 장	임채호 (044-200-5350)
		담당자	사무관	장민철 (044-200-5355)



12월
이달의 수산물

방어

a yellow tail



방어는 니아신이 풍부하고 베타인류 성분이 많으며 회나 매운탕 등 다양하게 즐길 수있다

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분

{Moisture}

75.6 g

단백질

{Protein}

21.7 g

지방

{Fat}

0.8 g

회분

{Ash}

1.5 g

에너지

{kcal}

101 kcal

칼슘

{Calcium}

15 mg

인

{Phosphorus}

289 mg

철

{Iron}

0.7 mg

니아신

{Niacin}

7.8 mg

류신

{Leucine}

1,796 mg

라이신

{Lysine}

1,571 mg

베타인

{Betaine}

86.6 mg

12월
이달의 수산물

미역

a brown seaweed



미역은 식이섬유와 비타민C, 셀레늄이 풍부하며 국, 초무침, 절기볶음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분	단백질	지방	회분
(Moisture)	(Protein)	(Fat)	(Ash)
87.6 g	3.0 g	0.3 g	4.0 g

에너지	칼슘	인	철
(kcal)	(Calcium)	(Phosphorus)	(Iron)
18 kcal	149 mg	80 mg	1.1 mg

식이섬유	니아신	비타민C	셀레늄
(Dietary fiber)	(Niacin)	(VitaminC)	(Selenium)
5.1 g	1.3 mg	15 mg	56 µg

12월
이달의 수산물

굴

Oyster



굴은 니아신과 타우린, 아연과 셀레늄이 풍부하며, 전, 무침, 국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분	단백질	지방	회분
(Moisture)	(Protein)	(Fat)	(Ash)
83.5g	9.2 g	2.6 g	2.4 g

에너지	칼슘	인	철
(kcal)	(Calcium)	(Phosphorus)	(Iron)
73 kcal	75 mg	115 mg	1.3 mg

니아신	타우린	아연	셀레늄
(Niacin)	(Taurine)	(Zinc)	(Selenium)
1.3 mg	1,006 mg	13.2 mg	44 µg

참고 2

최근 5년간 방어, 미역, 굴 생산량 및 수출입량

□ 생산량

(단위 : 톤)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방어	13,874	16,578	13,823	15,490	21,907
미역	521,971	525,219	506,620	580,878	591,792
굴	340,356	357,282	328,880	329,920	323,686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 2023.11.10기준

□ 수출·수입량


(단위 : kg)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방어	수출	53,696	184,715	271,163	530,259	430,945
	수입	1,574,477	2,251,145	2,626,975	3,420,258	2,692,974
미역	수출	15,615,347	16,279,323	16,050,115	9,243,205	6,640,250
	수입	4,417,278	6,082,775	6,701,715	3,282,179	2,270,231
굴	수출	10,423,473	11,018,203	9,457,144	10,127,420	9,853,441
	수입	144,516	161,001	120,169	36,726	63,904

* 자료 : 수산물수출정보포털 / 2023.11.10기준

국민수산물
전국통행성

어식백세
100세





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합니다

12월


이달의 수산물

지금 먹어야 더 맛있는
싱싱한 제철 수산물
방어와 미역 굴






방어




찬바람이 불어오면 생각나는 방어!
겨울철 지방질을 축적해 찰진 식감과 고소한 맛의 겨울 방어

미역




맛과 영양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미역!
달콤한 맛과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으로 꼽히는 미역

굴



바다의 우유! 굴!
동서양을 불문하고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굴!



해양수산부 우리바다, 우리식탁 안전합니다



2023년 12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



무의도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포내어촌체험휴양마을

포내마을은 수도권에서 1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어촌이다. 바다를 배경으로 어촌마을 워크케이션을 할 수 있으며, 조개캐기체험, 소라화분만들기체험도 가능하다. 인근에는 무의도 해상관광탐방로가 있어 산책하며 여유를 즐기기에 좋다.

- 체험 : 조개캐기체험, 소라화분만들기체험
- 먹거리 : 활어회, 해물 갈국수
- 주변 관광지 : 하나해수욕장, 호룡곡산, 무의도 해상관광탐방로

☞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301번길 19-16
☎ 032-752-5422 🌐 www.포내어촌체험마을.kr



다양한 관광지와 체험프로그램이 있는 궁항어촌체험휴양마을

궁항마을은 마을 앞 드넓게 펼쳐진 갯벌에서 바지락을 잡을 수 있는 갯벌체험과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실내에서 열쇠고리를 만드는 나전칠기체험이 가능하다. 만지도, 통영 케이블카 등 인근 놀거리가 많으며, 궁항어촌체험마을민박이 있어 아이들과 1박 2일 여행을 하기에 좋은 어촌이다.

- 체험 : 갯벌체험, 나전칠기체험
- 먹거리 : 바지락, 굴, 감성돔
- 주변 관광지 : 통영케이블카, 스카이라인루지 통영, 만지도-연대도 출렁다리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궁항길 46-8
☎ 010-8956-1058 🌐 www.궁항어촌체험마을.kr



선착순
증정

이달의 어촌 여행지 방문하면
보냉백 굿즈를 드립니다

바다여행 누리집
www.seantour.kr





지켜주세요!! 이달의 해양생물

발달하는 정부 더 편안한 국민

바다의 거대한 스피드왕

지구상에 현존하는 동물 중 대왕고래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참고래는 몸길이가 최대 24m, 몸무게는 75톤에 육박하는 거대한 해양포유류이다. 먹이를 먹을 때 우리를 짓는 습성이 있으며, 매우 커다란 몸집에도 불구하고, 시속 37km 정도로 빠르게 수영할 수 있다. 198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살아있는 개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흔해져 죽은 개체만 드물게 발견되어왔다. 하지만 42년 만인 2022년에, 동해에서 살아있는 개체 6마리가 발견되어, 참고래가 우리 바다를 방문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 참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분포 및 생태적 특성

적도부터 극지에 이르기까지 전 대양에 분포한다. 주로 먼 바다에 살면서 깊은 수심까지 잠수하기 때문에 잘 볼 수 없지만, 가끔 연안에도 접근하기에 우리나라 동해에서도 야따금 관찰된다.



Balaenoptera physalus

우리가
보호해야 할
참고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12월 이달의 등대

2023년 12월 이달의 등대로 울산광역시 동구에 있는 '솔도등대'가 선정되었다. 솔도등대는 해일 범 6초마다 한 번씩 흰색 불빛을 반짝이며 밤어장함을 일출정하는 선박의 안전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1958년에 설치된 부인등대이다. 밤어장함파도를 건너 보면 샌드라크림 서 있는 솔도등대를 만날 수 있는데 등대 난간 위에 올라가서 보는 시원한 바다 풍경이 아름답다. 솔도는 외해에서 방어진항으로 들어치는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바위섬이다. 솔도는 섬 전체가 구멍이 뚫린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120만 개에 이르는 이 구멍은 석공 조개의 일출인 들맞조개가 만든 것이다. 솔도의 바위 구멍을 드나드는 파도 소리는 마치 거문고 소리처럼 들린다고 하여 '솔도(瑟島)'라는 이름이 붙었다. 솔도에 올라 피치는 파도 소리는 솔도악파(瑟島鳴波)라고 불리며 밤어진 12점 중 하나로 꼽힌다. 마치 모양의 솔도교를 건너면 다산과 불요를 상징하는 '새끼 엷은 고래'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등상이 있고 인근의 소리체험관에서는 고래와 바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또한, 요즘은 '홍콩식'을 찍을 수 있는 아역 사진 명소로 알려져 남녀노소를 불문한 관광객들에게 유명하다.



솔도등대를 포함한 이달의 등대 정보는 국립현대미술관 누리집에서, 인근 관광 정보는 울산관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변 관광지

- 소리체험관
- 대항암 대항암공원
- 솔항다리
- 일산해수욕장
- 장생포 고래박물관 & 고래생태체험관
- 진해해수욕장-영선교
- 울산해양박물관
- 강동-주천 동물해변
- 달사해당낭사공원



주변 먹거리 _ 가자이민

겨울이 가자이라는 이름: 바다가 갇혀있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울산이 좋은 계절이 맞은 바로 참가자이민 푸르는 '물가자이'이다. 물산 방어산향은 전국 참가자이민 어항의 6-70%를 책임진다. 참가자이는 크기 50cm 정도. 치느림마에 붉은빛을 띠는 게 특징이다. 참가자이는 연중 먹히는 생선이지만, 겨울이 제일이다. 겨울에 가장 기름지고 살이 꽉 찬국 마시가 들의 맛을을 물산으로 재현한다.



이달의 등대 이벤트

2023. 1. 1. ~ 12. 31.

1/ 블로그 포스트 이벤트

포스팅하고 여행경비 지원받자!

- 이달의 등대 방문 후기 포스트 중, 우수 포스트를 선정하여 국내 등대 방문 경비 지원(국민관광진흥금 10만원)을 지급한다.

2/ 모바일 등대스탬프 투어 2023 시리즈 오픈!

스마트폰에 2023 시리즈 '이달의 등대'를 모아보세요!

- 스탬프 투어 12개소 완주자에게 등대 기념품 증정

* 참여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등대를 방문 누리집 및 스탬프 투어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3 이달의 등대는 12월 31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달의 등대는 12월 31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12월 31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함께 배워요
이달의 해양유물

12

백자청화운룡문항아리
白磁靑畵雲龍文壺



해양유물을
소개해 주세요
<https://www.inmm.or.kr>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우리 해양 역사의 소중한 이야기와
자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해양유물 이야기를
소개해 주세요.

기증문의

해양수산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설립추진단
044-200-6064

기증대상

해양사, 해양교류(해운·항만),
해양예술, 해양민속, 해양과학,
해양산업, 각종 어업·항해도구 등
다양한 해양 관련 자료



조선후기 | 높이 47.8, 입지름 18.5, 굽지름 18.3 | 해양수산부 소장

해양수산부는 2023년 마지막 이달의 해양유물로 <백자청화운룡문항아리>를 선정하였다.

상상의 동물인 ‘용’은 동·서양의 전통사회에서 바다를 관장하는 해양의 신으로 여겨져 신앙의 대상이었다. 용은 어민들에게 해신(海神)으로서 어로신앙의 대상이었고, 농경민들에게는 구름을 움직이고 비를 내리는 수신(水神)으로 숭상되었다. 조선왕실은 구름을 헤치고 승천하는 용의 모습을 상서로운 것으로 여겨 왕실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애호하였다.

해양수산부 소장의 <백자청화운룡문항아리>에도 구름 속을 힘차게 날아오르는 용문양이 생동감있게 그려져 있다. 크게 부릅뜬 눈,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털과 수염, 날카로운 4개의 발톱, 몸통 비늘까지 꼼꼼하게 묘사한 필치가 궁중화원의 솜씨로 보인다. 문양뿐 아니라 형태도 50센티에 가까운 큰 키에 어깨가 당당하게 벌어져 있어 왕실의 권위를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은 용이 그려진 청화백자 항아리는 대표적인 왕실 공예품으로, 혼례, 제사, 장례 등 크고 작은 궁중 행사에 두루 사용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양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사라져 가는 해양유물을 수집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2024년 개관 예정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 중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양역사 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유물을 기증받는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해양수산부

영토의 시작,
생태와 경관의 보고

무인도서

2023년 12월
이달의 무인도서해수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

진도 낙조의 명소

부도

고도 70m, 길이 약 550m,
면적 97,610㎡한국관광공사에서 소개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 장소청정해역에서 자란 대표 특산물
자연산 돌미역

해양수산부는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에 위치한 '불도(佛島)'를 12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선정하였다.

한 스님이 해 질 녘 학을 따라 날아올랐다가 바다에 떨어졌다는 전설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불도는
고도 70m, 길이 약 550m, 면적 97,610㎡인 무인도서로, 육지로부터 약 3.2km 떨어진 곳에 있다.화산재가 쌓여 굳은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불도의 암석층은 조류와 파도, 비바람에 의해 깎이고
달아 기이한 모양의 바위와 동굴, 절벽을 이루고 있다. 불도는 1980년대까지 사람이 거주하던 유인도
였으나 지금은 '명상의 섬 불도'라는 비석과 함께 무인등대와 나무계단이 덩그러니 남아있고 곰솔과
후박나무, 왕대군락만이 섬 전체에 퍼져있다.불도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선정된 세방낙조전망대에서 멀찍이 바라볼
수도 있지만, 유람선을 타면 다도해의 풍광을 다채롭게 즐기며,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다.불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에서, 인근 관광 정보는 진도군
관광문화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www.mof.go.kr | blog.naver.com/koreamof
www.facebook.com/mofkor/photos

전라남도 Jindo



진도군 문화관광